

오직 한 가지, 웹디자인만을 위하여

웹디자인그룹

Web Design Group: Committed to Web Design

웹 디자인그룹. 이름에서부터 확실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모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는가. 제프 주코스키와 그의 동료들이 설립한 웹디자인그룹은 시카고에 위치한 인터넷 관련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디자인을 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웹디자인그룹은 수 많은 다양한 목적을 모두 만족시키려하기보다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에 중점을 두고 웹사이트를 제작한다. 또한 크리에이티브한 웹디자인과 멀티미디어 외에도 웹개발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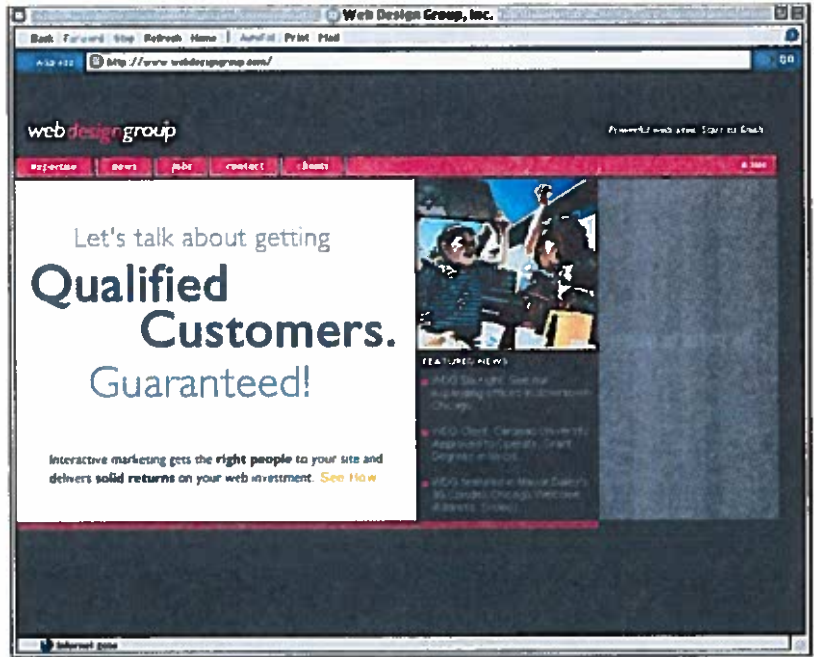
웹디자인그룹은 1998년 차세대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으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실험적인 사이트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대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방문하였고, 이 사용자들의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었다. 마케팅 타겟으로부터 수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직접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으며, 주문과 발송, 고객 관리를 자동화된 서비스로 제공하였다.

이것은 어떻게보면 최근 도입되는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의 초기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웹사이트 개발의 성공은 고객들의 움직임 미리 파악하는 것에 있다고 웹디자인그룹의 정보디자이너, 지저스 비스타만테(Jesus Bustamante)는 말한다.

웹디자인그룹은 또한 직접 디자인을 하는 작업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것은 정보를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실제적인 해결책이다. 이곳의 모든 디자이너들은 실제로 웹사이트를 구축한 경험이 많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정통하다. 즉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고 고객을 위해 뭔가 쓸모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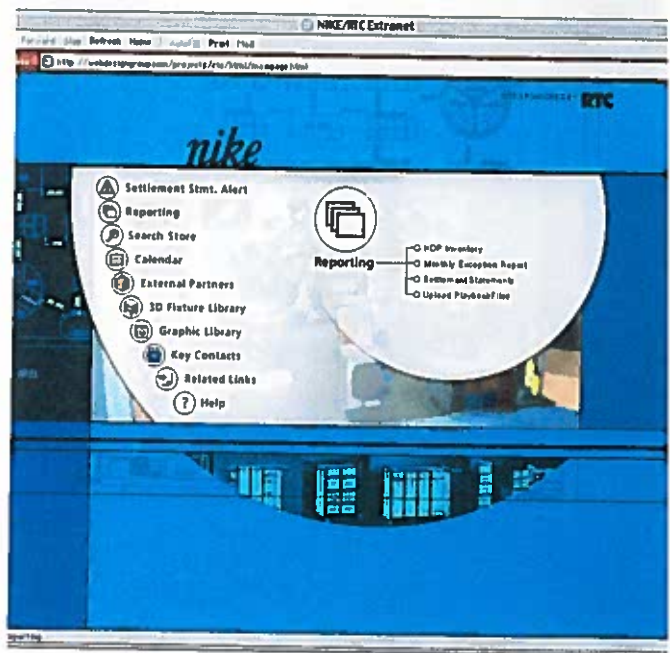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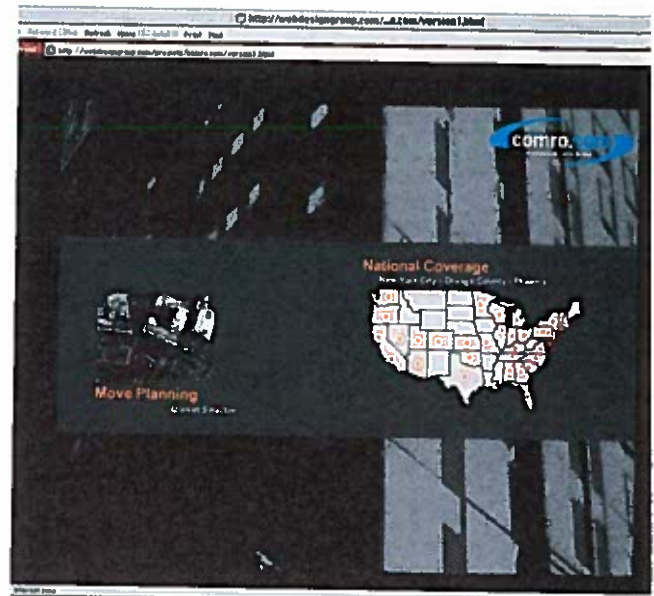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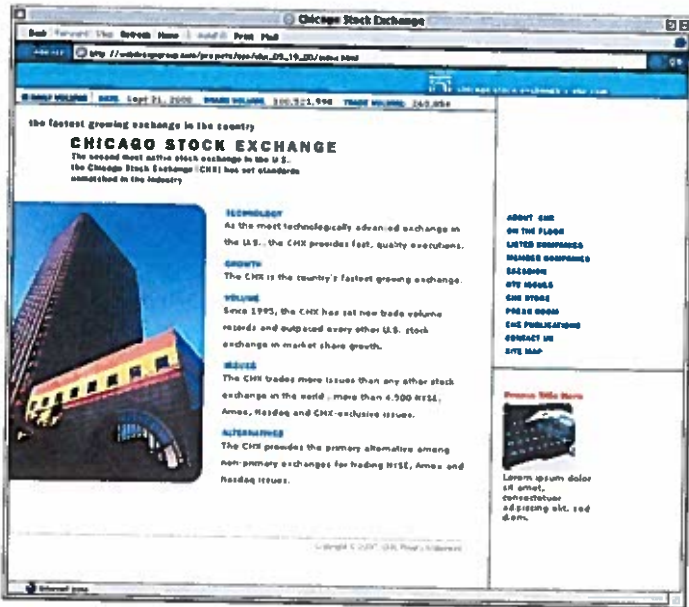
웹디자인그룹의 개발단계

1. 사이트의 프로모션과 마케팅
2. 콘텐츠 개발
3. 사이트 관리와 업데이트
4. 고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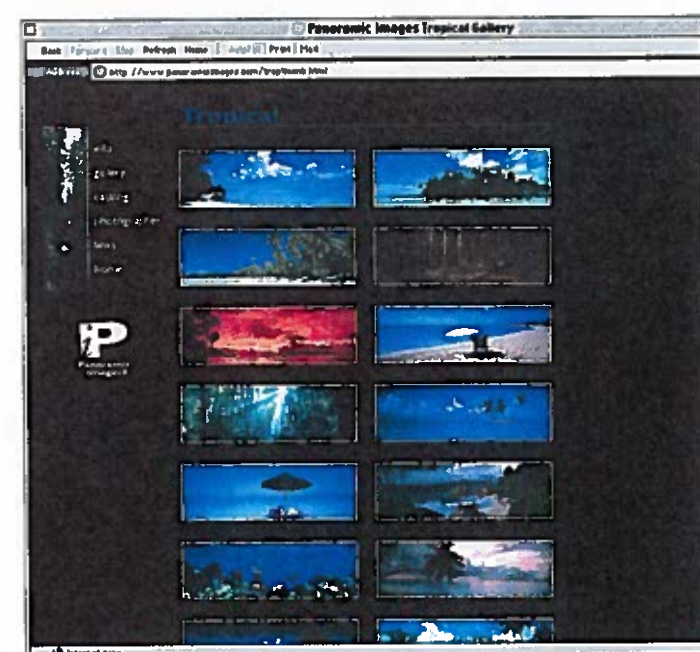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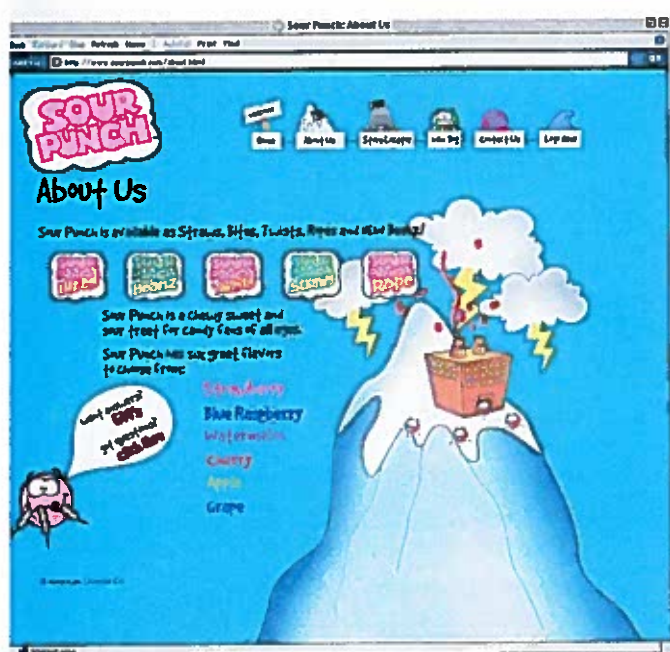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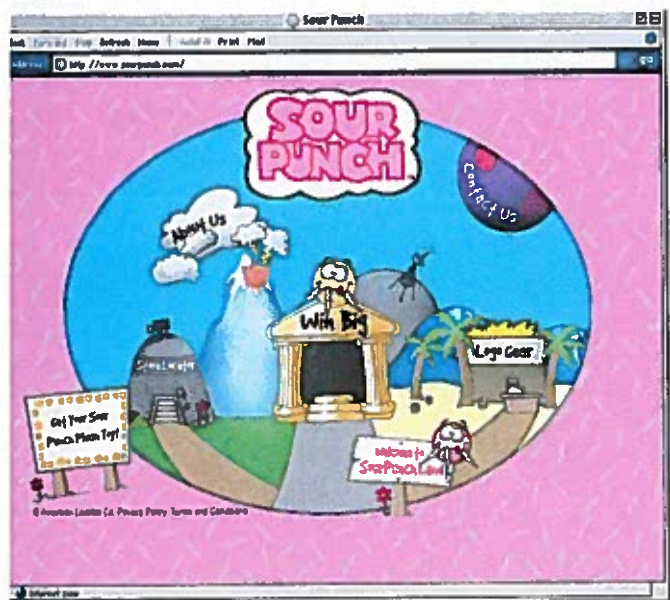


웹디자인그룹의 웹사이트

www.webdesigngroup.com



웹디자인그룹의 표본페이지





웹디자인그룹의 직원들

Interview |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션 엠버리(Sean Embury)

미래 웹 디자인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보는가?

향후 몇 년 간 웹 상에서 정보가 제시되는 방법은 기술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페이스 작업에서 좀더 순수한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일을 찾아나갈 것이다. 즉 이들은 공간, 균형, 색, 대비 등을 어떤 매체에서든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웹 디자이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상황은 보다 넓은 대역폭이다. 그러한 융통적인 공간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고객이 바라는 바에 일치하는 훨씬 창의적이고 보다 풍부한 표현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시카고에서 광대역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미 우리가 제작한 고객들의 사이트에 쌍방향 비디오 및 높은 화질의 모션 그래픽 등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멋진 도전이 기대되는 또 다른 분야는 개인화이다. 개인 사용자에게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1대1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일이 앞으로 큰 시장성을 보이며 발전할 것이다.

웹디자인그룹의 디자인 철학이라면?

우리의 디자인 철학은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를 논리적인 관계와 경로 위에 창출해 내기 위해 설계자와 디자이너가 고객과 함께 일을 진행한다.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디자인과 구상적인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디자인은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어떤 디자인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사용자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집약적으로 개념화와 전략을 수행해 나간다. 질적 향상은 창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강조해온 부분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사를 일궈오는데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만약 디자이너가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다면 다시 작업하고, 정말 만족스러워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 디자이너들은 또한 서로의 작품에 대해 비판할 것을 권장받으며 자신의 작품이 낱알이 혹평을 받는다 해도 아무도 비참해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작업에 대한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 혹평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디자인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는가?

테드.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내가 보고 느끼는 방식에서, 또한 나의 선생님이었던 그랜트 피셔(Grant Fischer)의 작품에서 지속적인 영감을 받는다. 그분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언제나 내 머릿속에서 생동한다.

션: 나는 우리 회사에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둔다. 그들 모두는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매우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웹 상에서 가장 멋진 사이트를 알고 있다. 그들이 음악, 디자인, 영화 등에 관해 나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언제나 나의 디

자인 감각을 살아 있게 한다. 그들처럼 세상을 관찰할 시간은 없었지 모르나 다행도 나에겐 젊은 그들이 있다.

웹디자인그룹의 회사 주변 전경은 어떤가?

우리는 리버 노스(River North)라고 불리는 시카고의 멋진 중심지에서 일한다. 많 최신 스타일의 카페와 식당들이 위치해 있고 디자인과 모델 에이전시 및 예술 관련 갤러리들과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는 고전적인 레스토랑인 미스터 비프(Mr. Beef)가 있다. 우리의 기호와는 다소 안 맞기도 하지만 많은장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마피아가 그곳을 경영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 로버트 드니로와 알 파치노 같은 쟁쟁한 스타들이 드나들기도 한다.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매일 그곳에서 식사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WDG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미스터 비프의 이탈리아식 비프 앤 페이 샌드위치를 먹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테드 빌립스(Ted Billups)

WDG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테드는 WDG에 오기 전에는 CNN에서 광고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미시간 대학에서 광고 및 디자인을 공부했고 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상임 멤버이며 시카고의 Junior Board of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창립 멤버이다. 시카고에서 학부과정 미술 감사를, 이후는 다소 심박되는 위인 그린 그리기기를 즐겨하는 개성적인 인물이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션 엠버리(Sean Embury)

디자인을 전공한 타 디자이너나 디렉터들과는 달리 캐나다 레지나 대학에서 문예 상학을 전공한 션 엠버리는 Saskatchewan Science Center의 전신 디자인으로 사업 분야에 입문했다. 테드 빌립스와 마찬가지로 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상임 멤버이며 Junior Board of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창립 멤버이다. 시카고에 오기 전에는 캐나다의 한 회사 두 군데에서 디자이너 및 예술 감독을 지냈으며 WDG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골프를 좋아하고, 직접 음악을 연주하는 미미주의 뮤지션이기도 하다.



정보디자인 디렉터 지저스 버스타만테(Jesus Bustamante)

WDG에서는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저스는 미드러드의 Universidad Complutense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인문학적인 사람이다. European Information Services에서 전자정보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학생부르크의 European Commission Host Organization (ECHO)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시카고의 Zenith Data Systems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철학과 도서관학 전공자답게 독서와 글쓰기가 취미이고, 숙독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